

육돈의 출하체중 증대와 가격동향



정숙근
(축산시험장 양돈과장)

현재 돼지고기 중에서 등심살과 어깨등심 및 안심살은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출하되고 있는 돼지는 대부분 80kg 이전에 출하·도살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너무 적어서 일본의 수입상품 중량 규격에 미달하여 수출할 수가 없다. 또한 고기의 성숙도가 부족하여 국내에서도 가공원료육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

수출규격상품 및 가공원료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10kg까지 길러서 도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도살되고 있는 육돈중 100kg 이상인 것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돼지는 거세하지 않고 기르기 때문에 수출대상이 될 수도 없다.

육돈의 출하체중이 90kg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돼지의 평균 생체중은 80kg 미만이다.

그러나 일본, 자유중국 및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출하체중을 100~110kg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의 품종이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80kg 이상 기르지 못하고 출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돼지도 미국이나 유럽 지방에서 도입한 같은 품종,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만한 이유는 없다.

종래에 중형종(中型種)인 버크셔나 중형 요크셔종을 위주로 기르던 시대라면, 출하체중을 90kg 이상 올린다는 것이 무리일런지도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거의 전부가 대형종인 랜드레이스, 대요크셔, 햄프셔 및 듀록종을 위주로 기르고 있기 때문에, 돼지의 자질이 나빠서 생체중 80kg 이전에 출하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질 못한다.

실질적으로 110kg까지 길러도 발육속도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이 성장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0kg 이상 크게 되면 도체의 kg당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필자가 서울의 2개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육돈의 출하 및 가격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개년 동안을 매월, 1일과 15일에 출하되고 있는 육돈의 전부를 축산물 도매시장의 정산서(精算書)에 의거 조사하였던 바, 평균 출하체중이 박피 도체중으로 53kg, 생체중으로는 약 79kg 정도이며, 이때에 가장 많은 두수가(20%) 출하되고 있었다. 생체중이 79kg보다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출하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90kg 이상에 출하되는 것이 약 20%, 100kg 이상에서 출하되는 것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 현재 우리나라는 생체중 79kg에서 최고단가를 받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110kg때 출하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의
가격형성 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만 한다. 』**

그런가 하면 도체의 kg당 가격도 생체중 79kg 정도에서 최고가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79kg보다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서 점차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출하체중이 79kg에서 65kg으로 작아짐에 따라서 도체단가는 약 3%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으나, 79kg에서 100kg까지 커짐에 따라서는 도체의 단가는 9%가 떨어지고 있어서 단가의 구조상으로 보아서 생체중 65~80kg 사이에서 출하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80kg 이상 기르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와같은 현상으로 보아서, 육돈의 평균 출하체중이 80kg 이하가 되는 주요한 원인은 도체의 단가가 생체중 80kg 정도에서 최고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여기에 맞추어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 있어서 돼지 도체의 가격동향은 도체중으로 68~73kg, 생체중으로 106~110kg 사이에서 최고가격이 나오도록 되어 있으며 120kg까지 커지더라도 최고가격의 3%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105kg에서 약 95kg까지 적어지게 되면 도체의 단가는 약 9%까지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도체중으로 15kg, 생체중으로는 무려 25kg 정도를 더 길러서 출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도체단가의 구조적 동향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양돈농가중에서는 100kg 이상 길러서 출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일

본의 경우에는 자연 100kg 이상 기를 의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80kg에 도살되던 것을 100kg 이상에서 도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600만두의 육돈이 도살된다고 할때 120만두는 덜 도살하더라도 같은 물량의 돼지고기의 공급이 가능하여지게 된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이상과 같이 도체의 단가는 출하체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대형종을 기르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는 발육생리상으로 보거나 실질적인 사양관리면으로 보아서도 육돈은 110kg까지 기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생산된 한마리의 돼지는 발육생리상으로 지장이 없는 한 최대 한계선까지 기른 후에 도살·이용하는 것이 자원의 활용면으로 보아서도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생체중 110kg에서 출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생체중 80kg 정도의 도체에서 최고 단가가 나오고 있는 것을 105kg 전후의 도체에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에서의 도체 1kg당 가격 형성 동향이 바뀌어져야 한다.

동시에 생체중 110kg에서 출하하게 될 경우에는 육돈의 생산자는 생체중 110kg 정도에서 과도한 지방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양관리를 개선하여 생체중 80kg에서 출하할때의 돼지와 비슷한 품질의 도체를 생산할 수 있어야만 한다. *